원효가 쓴 기신론 해동소



지안 스님의 〈대승기신론〉 강설

직지사 한문불전대학원 원장

기신론의 삼대소(三大疏) 가운데 혜원의 정영소(淨影疏) 다음에 나온 것이 원효의 '해동소(海東疏)'이다. 중국에서 신라를 해동이라 하였으므로 해동소라 한다. 원효의 해동소는 현수(賢首)가 〈기신론의기(起信論義記)〉를 지을 때 많은 참고를 했을 정도로 기신론의 소 가운데 가장 탁월한 소라고 평가받고 있다.

중국이나 우리나라 불교사에서 경·율·논 삼장에 걸쳐 가장 많은 저술을 남긴 대표적인 인물이 원효이다. 조명기 박사가 편찬한 〈원효대사전집〉 목록에 의하면, 총 91종의 저서 이름이 있고, 현존하는 것은 경에 관한 것 9종, 율에 관한 것 2종, 논에 관한 것 4종, 기타 5종 등 20부 23종이 남아 있다고 한다.

〈삼국유사〉에 전해지는 원효에 대한 기록엔 몇 가지 설화가 있다. 그 가운데 원효와 혜공(惠空)에 관한 이야기가 있는데, 원효가 여러 주와 소를 쓰다가 혜공에게 물어 의심을 해결했다고 한다. 이런 점에서 보면 혜공은 원효를 가르친 스승의 역할을 한 셈이 된다.

원효는 기신론소(해동소) 외에도 〈기신론별기(起信論別記)〉를 지었다. 기신론에 관한 원효의 저술은 종요(宗要), 소문(疏文), 대기(大記), 요간(要揀) 등 6종이었으나 현재까지 전해지는 것은 소와 별기뿐이다. 원효의 소는 먼저 종체(宗體)를 나타낸 다음 제목의 이름을 해석하고 본문을 한 구절씩 해석해 나가는 방법을 취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대승을 소승과 상대되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있지만 기신론에서 내세우는 대승은 대·소승의 상대개념이 아니다. 원효는 별기에서 대승의 종체를 설명하면서 "이치가 없는 것이 지극한 이치이고 그렇지 않은 것이 크게 그러한 것(無理之至理 不然之大然)"이라는 특이한 표현을 하여 대승을 설명하였다.

원효의 소와 별기에서 나타난 기신론 이해의 특징은 공(空)을 주장한 중관사상이나 식(識)을 내세운 유식 사상을 어느 한쪽에 치우치지 않고 종합하고 회통하여 진속불이(眞俗不二)의 관점에서 기신론을 이해한 점이다.

원효가 입당유학(入唐留學)을 하려고 길을 떠났다가 도중에 노숙을 하면서 '촉루수(觸 水, 해골물)'를 마셨다는 유명한 일화를 통해 원효가 유심대의(唯心大義)를 터득했다고 알려져 있듯이, 진속불이의 관점이 곧 유심대의와 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각범혜홍(覺範慧洪, 1071~1128)의 〈임간록(林間錄)〉에 수록되어 있는 촉루수 설화에는, 밤중에 모르고 마셨던 해골 물로 갈증을 풀었는데 다음 날 날이 밝아 해골 물을 마셨다는 사실을 알고는 속이 메스껍고 구토가 올라오려는 것을 느끼는 순간, 모든 것이 마음의 조작이라는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의 도리를 깨달았다는 것이다.

원효의 해동소가 가장 '탁월' 평가

진속불이의 관점서 기신론을 이해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 삼계가 오직 마음뿐이요, 만법도 오직 식일 뿐이다. 마음 밖에 법이 없거늘 어찌 달리 구할 것이 있으랴. 내 이제 당나라에 갈 필요가 없구나."

이와 같은 독백을 한 원효는 끝내 입당을 포기하고 신라로 돌아오고 말았다. "마음이 생기면 가지가지 법이 생기고 마음이 없어지면 가지가지 법이 없어진다(心生則種種法生 心滅則種種法滅)"란 말은 원래 〈능가경〉에 나오는 말이다. 기신론을 '〈능가경〉을 달리 펼쳐놓은 책(別伸書)'이라 할 정도로 〈능가경〉의 내용과 관련이 많다.

〈능가경〉은 대승불교 후기에 나온 경전으로 여래장사상과 유식사상을 결합시켜 기신론의 내용을 체계화시키는데 직접적인 영향을 준 경으로 보고 있다. 삼역본(三譯本)이 있는데 권수가 달라 4권경, 7권경, 10권경으로 부른다. 원효는 자신의 기신론소에서 능가 삼역을 골고루 인용하고 있다. 달마가 처음 중국에 왔을 때 4권 능가경을 가지고 와 법을 폈다 하며, 나중에 혜가를 만나 법을 전해 줄 때에도 의발과 함께 4권본 능가경을 전해주었다 하여, 초기 선종을 능가종이라 부르기도 했다. 〈해심밀경〉과 더불어 유식의 소의경전이 된다.

당신이 중생 위해 눈물 흘릴 부처입니다



시인 도정 스님이 풀어쓴 〈대장부론〉

㊷보살이 눈물을 흘리는 이유

有悲心者見貧苦眾生無財可與。悲苦歎息無可為喻。救眾生者見眾生受苦悲泣墮淚。以墮淚故知其心軟。菩薩體淨悉皆顯現。何以故。知其顯現。見苦眾生時眼中墮淚。以是故知菩薩其體淨軟。菩薩悲心猶如雪聚。雪聚見日則皆融消。菩薩悲心見苦眾生。悲心雪聚故眼中流淚。菩薩有三時。一者見修功德人。以愛敬故為之墮淚。二者見苦惱眾生無功德者。以悲愍故為之墮淚。三者修大施時。悲喜踊躍亦復墮淚。計菩薩墮淚已來多四大海水。世間眾生捨於親屬悲泣墮淚。不及菩薩見貧苦眾生無財施時悲泣墮淚。(유비심자견빈고중생무재가여。비고탄식무가위유。구중생자견중생수고비읍타루。이타루고지기심연。보살체정실개현현。하이고。지기현현。견고중생시안중타루。이시고지보살기체정연。보살비심유여설취。설취견일즉개융소。보살비심견고중생。비심설취고안중류루。보살유삼시。일자견수공덕인。이애경고위지타루。이자견고뇌중생무공덕자。이비민고위지타루。삼자수대시시。비희용약역부타루。계보살타루이래다사대해수。세간중생사어친속비읍타루。불급보살견빈고중생무재시시비읍타루。)

번역

자비심이 있는 이는 가난으로 고통받는 중생을 보면 재물이 없어도 주거니와, 자비심으로 탄식함이 비유할 바가 없습니다. 중생을 구제하는 이는 중생이 고통 받는 것을 보면 자비심으로 눈물을 떨구며, 눈물을 흘림으로써 그 마음이 부드러운 줄 압니다. 보살은 근본바탕의 깨끗함을 모든 곳에 드러냅니다. 어째서 그 드러냄을 알 수 있는가 하면, 고통 받는 중생을 봤을 때 눈에 눈물을 흘리기 때문입니다. 이로써 보살의 근본바탕이 깨끗하고 부드러운 줄 압니다. 보살의 자비심은 마치 구름이 모이는 것 같습니다. 구름이 모이면 해가 가려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보살이 자비심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볼 때 자비심이 구름처럼 모이기 때문에 눈에 눈물이 흐르는 것입니다. 보살은 세 번 울 때가 있는데 첫째, 공덕을 닦는 사람을 봤을 때이니, 사랑하고 존경하는 고로 눈물을 흘립니다. 둘째, 고통 받는 중생이 공덕 닦음이 없는 것을 봤을 때 자비심으로 불쌍하여 눈물을 흘립니다. 셋째, 큰 보시를 닦을 때이니, 자비심에 기뻐 뛰며 역시 눈물을 흘립니다. 보살이 눈물 흘린 것을 계산하면 사대양의 바닷물보다 많습니다. 세상의 중생은 친척 권속을 잃어 슬퍼 눈물을 흘리지만, 보살이 가난으로 고통 받는 중생을 보고 보시할 때 재물이 없어 자비심으로 우는 것에는 미치지 못합니다.

해설

경전에는 '일생보처(一生補處)'라는 말이 있다. 보처라는 말은 '대신 자리를 메운다'는 말이다. 그래서 한 생애 동안 부처님의 자리를 메우는 이를 일러 '일생보처'라고 하는 것이다. 그리고 일생보처는 다음 생에 부처를 이루는 분들이다.

화엄경 〈여래명호품〉에 나오는 말이다. "세존께서 마가다국 고요한 도량에서 정각을 이루시고 보광명전 연화장 사자좌에 앉으셨을 때, 열 세계 티끌 수 보살들과 함께 계셨으며, 모두 일생보처(一生補處)"라고 기록돼 있다.

〈화엄경〉에서는 '보살의 삶은 곧 부처의 삶이요, 보살의 말은 곧 부처의 가르침'이라고 설한다. 이 말은 당신이 곧 일생보처임을 암시하고 있다. 보살이라는 말이 깨달은 중생을 의미하며, 깨달음을 이루려는 중생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또한 깨달음을 실천하려는 중생이기도 하다.

그러니 당신이 바로 지금 이 사바세계에 부처님 대신이 아니라고 하겠는가. 부처님 대신 중생을 위해 눈물 흘려야 할 보살이 아니겠는가.



향봉 스님의 一切唯心造

열려있는 불교처럼

상식이 통하고 기본에 충실하면 탈이 없다. 궤도를 벗어나는 부끄러운 일이 발생되지 않기 때문이다.

난초를 화폭에 담을 때 한 줄기쯤은 꺾여 있는 걸 그리는데 이것을 파격(破格)의 미(美)라 칭한다. 그러하듯 규범 속에 질서만을 강조하면 사람냄새가 사라질 수도 있을 터이다. 그러나 질서는 편한 것이다.

상식이 통해야 사람다운 사람인 것이다. 요즘 성직자라는 그럴듯한 직분을 앞세워 천국을 팔고 양심을 팔고 영혼 장사까지 서슴없이 저지르는 성직자 아닌 성직자를 보게 된다. 최소한의 지켜야할 기본덕목마저 팽개치고 끌어당김의 상술을 이용하여 현찰 챙기는 일에 몰두하는 느낌이 없지 않다. 깨달음의 종교인 불교가 기복신앙으로만 치닫는 현 주소를 지켜보고 있기 때문이다.

불교의 경전은 주입식이나 명령어가 아닌 대화체로 구성되어 있다. 토론 문화를 통해 논리적이고 합리적으로 마음을 중심으로 짜여진 과학적·인문학적·윤리학적인 내용이 불교 경전만의 자랑인 것이다. 불교의 세계관과 인생관은 창조주의 조화가 아닌 연기법칙(緣起法則) 같은 과학적 논증으로 설명하고 있는 것이다.

〈화엄경〉의 법계연기론(法界緣起論)은 우주의 빅뱅 이전의 모든 존재론적 의문 부호를 명쾌하게 녹여 주고 있다. 한 터럭 속에도 구억의 생명체가 모여 살고(一毛孔中 九億 ∀ 한 티끌 속에 시방의 모든 세계가 담겨있다(一微塵中 含十方)는 열린 논리는 불교의 경전에서만 만날 수 있는 과학마저 뛰어넘는 가르침인 것이다.

극락세계도 죽어서 가는 게 아니라 마음만 열리면 중생이 부처가 되어 발길 닿는 곳, 이르는 곳이 곧 정토(淨土) 세계가 되는 것이다.

열반의 사덕(四德)에서 알리고 있듯이 깨달음을 이뤄 열반(涅槃)을 성취하면 예토(穢土) 그대로 정토(淨土)가 되어 움직이는 것은 모두 아름다운 제행유상(諸行有常)과 일체계락(一切皆樂), 제법유아(諸法有我), 당생정토(當生淨土)를 누리는 것이다. 그런데도 다수의 수행자들이 무아(無我)와 진여(眞如)를 가리지 못한 채 막연한 희망사항으로 경전 내용을 짜깁기 하는 모습은 생각의 윤회를 가중시킬 따름이다.

불교의 대표적 가르침인 중도사상(中道思想)마저 좌와 우로 기울지 않는 균형과 조화로 받아들여 양변불락(兩邊不落)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제선사가 통쾌하게 웅변적으로 보여주고 있듯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이란 뜻인 수처작주(隨處作主)가 불교의 중도사상인 것이다.

동·서·남·북은 본래 없는 것이다. 내가 머무는 곳을 중심으로 사방팔방이 갈리며 비롯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나는 세상의 중심에 있는 세계의 주인공인 것이다. 모서리와 변두리가 없는 것, 나의 발길 닿는 곳이 세상의 중심, '마음이 곧 부처요(心卽是佛) 생활 그대로도(生活是道)'이며 '사람이 부처다'는 인불사상(人佛思想)이 중도(中道)의 바른 가르침인 것이다.

그러므로 불교는 열린 종교이다. 구원을 약속해 주는 메시아 따윈 키우지 않는다. 사람이 곧 부처요 이 세상이 곧 극락세계이다. 팔만대장경의 대표적 가르침은 중도사상(中道思想)과 연기법칙(緣起法則)이다. 또한 오온(五蘊), 십이처(十二處), 십팔계(十八界)에 대한 중복되는 설명이다. 다만 사무치게 간절심으로 깨달아야할 것은 무아(無我)에 대한 열린 안목이다. 무아(無我)와 진여(眞如)에서 헤맨다면 진정한 의미의 불교학자도 교수도 선지식도 아닐 터이다.

상식이 통해야 사람다운 사람
수행자는 수행자다운 것이 중요

이쯤에서 상식이 통하는 설법, 기본이 충실한 자세에 대해 언급해보자. 깨달음을 향해 정진하는 독신 수행승일수록 개운한 모습을 지켜 나가야한다. 머무는 사찰이 한 가지 소원을 들어주는 도량임을 선전하고 현금거래에 치중하는 영험설화를 풀어대는 치졸한 모습은 색깔과 이름만 승려일 뿐이다.

초청 법회의 주최 측에서 내미는 현금이 든 봉투도 아름답게 사양하는 법보시(法布施)를 실천하는 스님이 스님이다. 49재를 돈으로 흥정하는 모습에서 죽은 자의 가족이 되는 심정으로 살피고 배려하는 열린 모습을 보이는 스님이 스님이다. 불교가 열려 있듯 스님도 열려 있어야 스님이기 때문이다.

희담석 건강용품

방사능력이 탁월한 희담석의 생명에너지로 건강과 활력을 찾으세요.



희담석 지킴이 염주세트 직경 8㎜
· 구 성 : 108염주 + 희담석지킴이
· 판매가 : 28,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2㎜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40,800원

희담석 108 염주세트 직경 10㎜
· 구 성 : 108염주 + 합장주
· 판매가 : 30,800원

www.hyunbulshop.com

* 희담석 염주는
· 어깨 결림 등으로 고생하시는 스님
· 목과 팔목이 늘 뻐근한 보살님
· 피로가 누적된 불자
· 온종일 책상에 있는 청년불자 들의 수행과 업무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 희담석 활용 100% 활용 방법
희담석(염주, 합장주)을 하루에 한두 번 정도 몸에서 잠시(약 1분정도) 내려놓으세요.
몸에서 분리된 희담석은 그때까지 희담석이 머금고 있던 몸의 나쁜 기운을 내뿜은 후 원래의 희담석 상태로 되돌아갑니다.

☆ 희담석(稀潭石, Batu Hitam)이란?
화산 폭발시 용암과 함께 분출된 무기물이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굳어진 화산석(현무암)의 한 종류입니다. 동남아 오지의 주민들이 예부터 치료용으로 사용해오던 것을 원적외선 파동검사등 성분 분석을 통해 인체에 유익한 에너지를 가진 것만을 엄선하였습니다. 희담석은 생명의 돌이라 불릴 만큼 분출되는 생명에너지의 양과 질이 뛰어납니다.

■ 주문 : 현대불교 현불샵 02)2004-8216 [농협] 053-01-269062 (주식회사) 현대불교신문사

"새는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 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 02)456-8831
강원도 : 019-3 9 6-1110
충청도 : 010-8674-2357
경상도 : 010-4187-0062
전라도 : 010-3511-6682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